

# 량치차오의 傳記文 『李鴻章』 연구\*

최형욱\*\*

## 〈目 次〉

1. 량치차오·이홍장·중국의 전기문
2. '文' 측면의 가치: 근대적 評傳의 성공적 시도
3. '史' 측면의 가치: '이홍장과 중국 근대사' 평론을 통한 중국 계몽
4. 결론

## 1. 량치차오·이홍장·중국의 전기문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중국 근대 전환기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정치 지도자로서 變法維新運動을 주도했고, 언론·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문학과 사학 등 학술 분야에서도 근대적 변화를 이끌었다.

사학자로서는 서구의 근대 사학이론을 수용하여 「新史學」·『中國歷史研究法』 등 여러 중요한 史論들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중국의 근대 사학을 정립하는 이른바 '史界革命'을 주도했다.

문학가로서도 문학개혁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 '詩界革命'·'小說界革命'·'戲劇界革命' 및 '新文體改革'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중국의 극심한 변혁기에 한계와 모순을 드러낸 고전문학 및 글쓰기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동시에 서구 및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중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자양분을 적극 수용했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

\*\* 한양대학교 중문과 교수

다. 이로써 근대문학 및 글쓰기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량치차오는 특히 신문체를 통해 근대적 글쓰기 및 산문 영역에서 일정한 변화를 이끌었고, 이로써 5·4백화문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중 산문 장르의 중요한 분야인 傳記文의 경우, 이론뿐만 아니라 작품 실천면에서도 매우 큰 성과를 이루었다. 전통적 형식들에서 두루 佳作들을 냈고, 서구로부터 처음 수용한 근대적 형식인 評傳도 선보이며 획기적 변화를 주도했다.

주지하듯이 중국 전기문의 기원은 司馬遷『史記』중의 列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正史의 전기문 외에 行狀·年譜·墓誌銘·哀啓·壽言·祭文 등도 광의의 전기문 범주에 포함되며, 자연히 그 수량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하다. 한편 중국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文·史·哲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결합이므로, 그 세 영역 특히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文·史의 기능과 요소가 융합된 전기문을 굳이 문학이나 사학 중 어느 한 영역에만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문은 인물의 생애를 제재로 한 일종의 산문 작품이고, 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물과 관련된 史實을 기록한 史書의 일종이다.

량치차오는 이 전기문 분야에서도 본질과 작법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 이론가였다. 특히 『中國歷史研究法』과 『中國歷史研究法補編』에서 평생의 역사 연구 관련 논의를 정리하는 가운데 전기문에 대해서도 심층적 견해를 피력했다.<sup>1)</sup> 이를 통해 보면, 그가 서구의 근대적 평전을 '專傳'이라는 명칭으로서 수용하고, 그에 관해 자신이 논의한 관념과 이론에 기초하여 『李鴻章』 등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저작 모두 그의 만년에 발표된 것이지만, 『李鴻章』을 비롯한 초기 전기문을 저술하는데 있어서부터 지침으로 삼았던 것들이 총괄되어 있다.

두 저작에서는 기본적으로 '傳記'에 대해 '인물의 역사'라는 의미로서 '人的專史'라고 규정하고, 중국 전기를 專傳·列傳·合傳·年譜·人表 총 5종으로 나누어 상세히 논의했다.<sup>2)</sup> 더불어 劉知幾·章學誠 등의 견해를 발전시켜 역사가가 갖추

1) 전자는 1922년 南開大學에서 강연한 내용을 『改造』誌 에 게재한 것이고, 후자는 1926-1927년에 清華大學에서 강연한 내용을 제자인 周傳儒·姚名達이 기록하고 량치차오 본인이 교열한 것인데, 정식 출판은 死後인 1933년 商務印書館에서 이루어졌다.

2) 梁啓超, 『中國歷史研究法補編』, 『飲冰室專集』之九十九, 北京, 中華書局, 1994, 28-121쪽 참고.

어야 할 덕목 또는 자격으로 ‘史德’·‘史學’·‘史識’·‘史才’의 이른바 ‘史家四長’을 제시했다.<sup>3)</sup> 순서대로 간략히 말하면, 역사가로서 도덕적으로 객관적인 충실성(공정성), 학술적 태도와 역량, 식견을 바탕으로 한 관찰력(통찰력), 文史 소양을 겸비한 글쓰기 기술(문장기술)을 가리키며, 전기문을 포함한 모든 역사 저술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량치차오는 전기문의 실제 저술에서도 고대와 근대를 잇는 과도기의 중요한 작가였다. 그의 수많은 산문 중 전기문은 총 51편이고, 이는 글자 수로 약 75만 자에 달한다.<sup>4)</sup> 전통적인 열전체 전기문으로는 1898년 10월 戊戌政變으로 희생된 유신파 동지들을 기린 통칭 ‘六君子傳’이 대표적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譚嗣同傳』이 유명하다. 하지만 전기문 분야에서 성과가 더 두드러진 쪽은 근대적 평전류였다. 1901년 저술한 『南海康先生傳』·『李鴻章』이 대표작으로,<sup>5)</sup> 중국 전기문의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李鴻章』은 량치차오가 저술한 전기문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으로 꼽힌다. 저술 대상이 된 이홍장<sup>6)</sup>(李鴻章, 1823~1901)은 량치차오의 규정대로 당시 중국의 최고 실권자였으며, 조선의 외교는 물론 내정에도 깊이 간여한 인물이다. 역시 정치가·군사가이자 학자였던 중국번(曾國藩, 1811~1872)의 제자이자 막료로서 성장하여, 淮軍을 거느리고 太平天國의 난과 捻軍의 난을 잇달아 진압하며 군사 가로서 큰 공적을 세웠다. 이로써 청조의 실력자로 부상한 후, 정치·외교 지도자로서 중국의 근대화를 추구한 洋務運動을 주도했고, 청일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했으며, 쇠퇴해져가는 중국의 여러 외교 교섭들을 주관했다.

3) 위의 책, 13-28쪽 참고.

4) 廖卓成, 『梁啓超의 傳記學』·『附表二: 梁啓超傳記文字篇幅統計表』, 臺灣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臺北, 1987, 134-141쪽 참고.

5) 李國俊이 편찬한 『梁啓超著述繫年』(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6)에 의하면, 『南海康先生傳』은 1901년 12월 19일 완성되어 21일 『清議報』 제 100책에 발표되었고, 『李鴻章』은 12월 중에 완성되어 新民叢報社刻本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南海康先生傳』이 약간 먼저 발표된 것으로 보이나, 두 작품은 선후를 가리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南海康先生傳』은 약 2만2천자, 『李鴻章』은 약 6만2천자 정도의 분량이다.

6) 중국인 인명을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 신해혁명(1911) 이전에 사망한 인물에 대해서는 한국 한자 독음으로 표기한다.

언급했듯이 중국의 전기문은 주로 문학과 사학이 긴밀하게 결합된 특별한 글쓰기 형식이고, 그 정체성은 근대적인 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되었다. 특히 근대사의 핵심적인 인물을 제재로 한 『李鴻章』은 더욱 그러했다. 서론인 제 1장에서 우선 이 전기문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의 역사적·문학적 문제의식을 함께 드러냈다. 량치차오는 이홍장이 근대 전환기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人士이며 따라서 그의 전기는 同光<sup>7)</sup> 이래 중국의 大事記라고 史的 規정을 했다. 이어서 이홍장이 안타깝게도 시대를 만든 진정한 영웅이 되지 못하고 시대가 만든 평범한 영웅에 그쳤기 때문에,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여겼다. 또 그에 따라 위대한 중국도 참담한 수모를 겪게 되었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 본론에서 치밀한 학술성과 더불어 자신의 강렬한 정감을 직접적으로 분출시키는 등 문학성이 강한 문장으로 독자들과 소통할 것임을 짐작케 했다.

정리하면, 전기문 『李鴻章』은 전통적인 열전체의 전기문으로부터 근대적이면서도 중국적 특색을 지닌 평전으로 변화·발전된 전환기적 작품이다. 더구나 구식 전기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6만2천여 자의 장편대작<sup>8)</sup>으로,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sup>9)</sup> 내용면에서는 뚜렷한 정치적·계몽적 목적의식 하에 이홍장과 당시 중국의 역사적 사건들의 관계 및 크고 작은 사건들의 인과성·연속성 등 역사적 흐름을 주의 깊게 논의했다. 특히 이홍장에게 있어서나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나 가장 관건이 되는 태평천국·염군의 난, 양무운동 및 청일전쟁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이다. 따라서 文과 史의 균형적 관점에서 볼 때, 전기문 『李鴻章』의 요체는 다음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체재 및 문체 면에서 '문학적 효용성을 갖춘 근대적 평전으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

7) 同治(1862~1874), 光緒(1875~1908) 연간.

8) 중국의 구식 전기문은 대체로 '簡傳'으로 편폭이 짧은 편이었다. 또 중요한 것은 문장의 일정한 작법과 체례를 매우 중시했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나 엄격한 사료적 가치보다 이른바 歌功頌德의 경향이 강함으로 인해 근대 사학적·평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9) 본 연구에서는 『飲冰室合集』, 北京, 中華書局, 1994년판 중의 일부인 『飲冰室專集』之三에 수록된 『李鴻章』 판본을 사용하고, 앞으로 그 인용 및 참고 주석은 간략히 『專集』之三, 몇 쪽' 식으로 한다. 한편 역시 『飲冰室合集』 중의 일부인 『飲冰室文集』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文集』으로 주석한다.

학적 내용면에서 '이홍장과 중국 근대 주요 사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 흐름을 논의한 참신한 역사 평론'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계몽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 두 가지 점에 고루 비중을 두고 『李鴻章』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文' 측면의 가치: 근대적 評傳의 성공적 시도

량치차오는 『李鴻章』의 맨 앞부분인 '序例' 중에서도 첫 번째 항목에서 "이 책은 완전히 서양인의 전기체를 본뵈었다."<sup>10)</sup>라고 천명했다. 중국의 전통적 열전 체제와는 다른 서구의 근대적 평전 체제를 채택하겠노라 선언하고 저술에 임했다. 그러한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李鴻章』은 중국 사학의 표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史家四長' 중의 '史才' 즉 文史 소양을 겸비한 글쓰기 기술을 수준 높게 구현한 점이 두드러진다. 요약하면 서사방법 면에서 우선 구조적으로 전통적 전기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分章의 방법과 서사 중간에 자유로이 평론을 섞어 넣는 방법을 사용하고, 상소문·언론 인용문 및 도표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歌功頌德의 구태의연한 전기문 글쓰기가 아니며, 나아가 정치적·학술적 목적의식이 뚜렷한 새로운 유형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李鴻章』의 맨 앞에 나오는 '序例' 6개 항목부터 간단한 저자 서문과 '일러두기'를 결합한 새로운 실용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첫 항목 외에 나머지도 모두 중요한 것들이므로 뒤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총 12개 章으로 나누어 이홍장이 사망한 해이자 이 평전을 저술한 해인 1901년까지 약 40년간의 중국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를 배경으로,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과 이홍장의 관련성을 기술하고 평론했다. 각 장에서는 大主題를 요약하여 장의 표제로 삼고, 바로 다음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장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小主題를 요약한

10) "此書全仿西人傳記之體." (『李鴻章』, 『專集』之三, 1쪽)

키워드 몇 개를 순서대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청일전쟁을 다룬 제 7장은 제목을 ‘청일전쟁 시대의 이홍장’으로 하고, 바로 뒤에 핵심내용을 요약한 문구로서 ‘청일전쟁의 화근’·‘이홍장의 전쟁 이전 失機’·‘大東溝 전투’·‘평양 전투’·‘갑오년 9·10월 이후의 상황’·‘패배에 이른 이유’·‘이홍장의 지위 및 책임’ 등을 제시하고 차례대로 논술했다. 실질적으로 전통적 전기와 달리 章은 물론 節도 안배하고 글쓰기를 한 셈이다.

또한 논술 과정에서는 상소문·조약문 등 다양한 사료를 적절히 배치하고, 중간 중간에 자신이나 타인의 평론을 두되 조화를 이루게 하고, 도표와 주석을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상소문으로는 「覆議製造輪船未可裁撤摺」·「臺灣事變籌畫海防摺」, 조약으로는 ‘시모노세키 조약’·‘辛丑條約’ 및 ‘강화도조약까지, 도표로는 ‘양무사업 사례표’·‘청일전쟁 당시 북양함대 괴멸 상황표’, 그리고 타인 평론으로는 서구 및 일본 언론 매체에서 인용한 평론 등등을 적절히 사용했다. 량치차오는 특히 ‘도표’를 매우 중시했다. 그는 도표에 대해 사마천이 발명한 것이고, 『史記』에서 다양한 유형의 도표로써 복잡한 재료들을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냈으며, 근대에는 서구인들의 특별한 장점이 되었는데, 이제 중국인들도 각별히 훈련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up>11)</sup>

이러한 체제를 채택함으로써 『李鴻章』은 이홍장 한 인물을 부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중국 근대사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시대의 모순 및 발전 추세를 논의한 점이 더 잘 드러나 보인다. 대부분 이 저작의 제목을 『李鴻章』으로 부르지만, 사실 그 原名은 『中國四十年來大史記』이다. 이 저작의 정확한 제목이 『中國四十年來大史記』(一名『李鴻章』)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도 량치차오의 저술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序例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삼사십년 동안 중국의 大事는 거의 이홍장과 관계가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때문에 이홍장을 위해 전기를 지음에는 근세사를 쓰는 필력이

11) 량치차오는 ‘史才’에 대해 ‘組織’과 ‘文采’ 두 항목으로 나누어 논의했는데, ‘도표’는 ‘조직’ 항목 하위의 ‘배열’ 부분에서 다루었다. (『中國歷史研究法補編』, 『專集』之九十九, 26쪽 참고)

로써 하지 않을 수 없다.<sup>12)</sup>

량치차오에게는 1901년 이홍장이 사망하기까지 격변해온 중국의 약 40년간의 역사를 평론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그 중심에 이홍장이라는 인물이 있었기에 자연히 그와 시대를 상호 연관시켜 기술하고 평론한 새로운 유형의 중국 전기문으로 전환한 것이다. 때문에 전통적인 열전체 전기문 체재와는 달리, 대상 인물 즉 ‘傳主’의 생평 관련 사항들은 중시되지 않았다. 『李鴻章』에서는 제 1장이 아닌 제 3장 ‘이홍장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의 중국 형세’에서 ‘서세동점의 추세’·‘중국의 내란 발생’·‘이홍장과 증국번의 관계’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홍장의 家世’에 대해 매우 간략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

위와 같은 관념은 량치차오가 평전을 저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다. 『中國歷史研究法補編』의 「人的專史」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내가 말하는 이상적인 평전은, 한 위대한 인물이 시대에 대해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관계와 사실을 그 가운데 귀납시켜, 횡적인 것과 종적인 것을 남김없이 망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大文學家의 평전을 지을 때, 당시와 그 전후의 문학조류를 각각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전은 그 대상이 비록 한 사람에 그치지지만, 그 목적은 한 사람에 있지 않다.<sup>13)</sup>

평전의 체재와 서사는 역사가·문학가이자 동시에 정치가·계몽주의자였던 량치차오의 선명한 현실적 목적의식에 잘 부합한다. 실제 그의 전기문 저술은 동서고금의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하던 간에 모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현실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지어졌다.<sup>14)</sup> 그리고 이는

12) “四十年來，中國大事，幾無一不與李鴻章有關係，故爲李鴻章作傳，不可不以作近世史之筆力行之。”(『李鴻章』, 『專集』之三, 1쪽.)

13) “我的理想專傳，是以一個偉大人物對於時代有特殊關係者爲中心，將周圍關係、事實歸納其中，橫的豎的，網羅無遺。比如替一個大文學家作專傳，可以把當時及前後的文學潮流分別說明。此種專傳，其對象雖止一人，而目的不在一人。”(『中國歷史研究法補編』, 『專集』之九十九, 38-39쪽)

14) 夏曉虹, 『傳世與覺世』, 北京, 中華書局, 2006, 130쪽 참고.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계몽적 선전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량치차오는 역사학 전반과 더불어 중국과 서구의 전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전기가 과거와 같이 사학이나 문학의 부속물에만 그치지 않고, 文史가 결합된 특별한 글쓰기로서 정치적·계몽적 효용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저술했다.

새로이 수용한 근대적 평전 체제는 무엇보다 충분한 평론을 통해 작자의 비평적 의론을 적절히 개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더욱 활용하고자 했다. 물론 『淸史稿·李鴻章』전을 포함한 전통적 열전체 전기문의 경우에도 서술과 더불어 평론을 가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대한 중단 없이 서사를 함으로써 산만해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경직된 요구로 인해 중간에 평론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그저 문장 말미에 간단히 더하는 정도였다.<sup>15)</sup> 반면에 『李鴻章』은 그러한 『淸史稿』식 ‘前敍後議’의 관습적 단선 구조에서 벗어나, 중간 중간에 상당히 긴 편폭의 평론을 자유로이 섞어 넣는 이른바 ‘夾敍夾論’<sup>16)</sup>의 복합구조를 활용했다. 중국 고대의 우수한 열전체에도 이미 있었던 장점인데 제대로 계승·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근대적 평전체를 수용하는 가운데 되살려내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평전의 저술은 당연히 ‘전주’의 선정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문학작품의 주인공을 설정하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평전에만 해당되는 작업이 아니라 무릇 전기라면 공히 공력을 기울여야 할 문제지만, 평전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가공송덕할 수는 있으나 역사적 평론을 할 수는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착안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 전기의 최대 유산인 司馬遷의 영향을 드러냈다.<sup>17)</sup> 서구로부터 평전체를 수용하면서도 민족주의적·국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15) 王昭鼎, 「梁啓超『李鴻章傳』與『淸史稿·李鴻章』之比較」, 平頂山學院學報, 31卷4期, 平頂山, 2016, 29쪽 참고.

16) 량치차오는 序例에서 사실 ‘夾敍夾論’의 방식은 司馬遷이 처음 만든 것이나 후인들이 史識이 부족하여 따라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이 비록 불민하지만 시도해보았다고 언급했다. (『李鴻章』, 『專集』之三, 1쪽 참고)

17) 사마천의 계발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陳蘭村, 『中國傳記文學發展史』, 北京, 語文出版社, 1999, 422쪽 참고.

18) 기본적으로 량치차오의 계몽사상은 서구 및 일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 방



『史記』의 열전 각 편은 반드시 어느 한 분야의 중요한 인물을 대표한다. …… 대체로 사회 전체로부터 착안하고, 인물로써 일종의 현상을 반영한다. 결코 전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그 일상생활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다. 19)

자세히 논의하면, 량치차오는 중국에 있어서 전주 즉 전기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는 인물유형들을 총 7부류로 정리하고 실례를 제시한 바 있다.<sup>20)</sup> 그중 이홍장은 일곱 번째인 ‘근대 학술이나 정치 분야에서 공적이 두드러진 인물’에 해당한다. 실례로서는 孫文과 西太后를 꼽았지만 사실 이홍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실로 중국 근대사의 관건이 되는 인물들이고, 작가 량치차오의 인생역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들이다. 아울러 이홍장의 경우는 사망한 직후 시점이라 관련 자료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고, 또한 자료들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편이었다. 저술 조건이 가장 양호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시급히 저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량치차오는 평전의 작법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언급했듯이 『中國歷史研究法補編』에서 먼저 중국의 전기를 5종으로 나누고, 그중 진정한 전기문으로 보기 어려운 人表를 제외하고 나머지 4종에 대해 각 한 章씩 안배하여 논의했다. 사실 작법의 기본은 대동소이하다. 평전을 비롯한 전기의 작법은 다음과 같다. ①자신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전주를 선택한다. ②전주의 저작을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삼는다. ③강령이 있어야 한다. ④전주의 여러 방면을 균형적으

침은 무조건 중국의 옛 것을 버리거나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고유의 것을 새롭게 하는 것과 서구의 것을 실정에 맞게 취사선택함을 포괄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新民說』·『釋新民之義』, 『專集』之四, 5쪽 참고)

- 19) “史記每一篇列傳必代表某一方面的重要人物. …… 大都從全社會着眼, 用人物來做一種現象的反映, 並不是專替一個人作起居注.” (『中國歷史研究法補編』, 『專集』之九十九, 29쪽)
- 20) ①시대나 학문의 중심이 될 만한 인물(예: 杜甫), ②행한 일이나 성격이 특출해 당대와 후대에 영향을 미쳤거나 表揚할 가치가 있는 인물(魯仲連), ③舊史 가운데 기록이 없거나 극히 간략한 인물 중 중요한 경우(墨子), ④이전 史家들의 편견이나 私感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曹操), ⑤本紀나 열전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간략한 경우(諸葛亮), ⑥중국과 관련이 있는 외국인(마르코 폴로), ⑦근대 학술이나 정치 분야에서 공적이 두드러진 인물(孫文) 등이다. (위의 책, 59-70쪽 참고)

로 서술한다. ⑤전주의 저작을 기록한다. ⑥전주의 개성을 묘사한다. ⑦평전은 부록을 두어 의문으로 남는 자료들을 수록한다. 등이다.

량치치오가 『李鴻章』을 저술함에 있어서도 대체로 자신이 제시한 작법을 준수했다. 특히 위 ①과 관련하여 유신과 량치차오는 양무파 이홍장의 정치적 라이벌<sup>21)</sup>이자 비판적 계승자<sup>22)</sup>이었으므로 누구보다 전주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학하는 이는 문학가의 傳을 짓고, 철학하는 이는 철학가의 전을 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한 바<sup>23)</sup>를 그대로 실천에 옮긴 셈이다.

다음으로 본고 다음 장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역시 중요한 것으로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춘 서술태도를 들 수 있다. 즉 ④와 관련된 것으로, 량치차오는 이홍장의 군사가·정치가·외교가 등 여러 방면에 대해 상당히 균형적으로 논의했다. 또 功과 過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고, 요직에서 물러나 한직에 있었던 시기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 등도 끝까지 균형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홍장과 경쟁을 벌였던 태평천국의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 역시 그러했다. 사실 영웅주의의 관점에서는 이홍장과 태평천국의 지도자들 모두 이른바 ‘실패한 영웅’들로 보고 논의했다고도 할 수 있다.

량치차오는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史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전주를 그려내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는 ‘史家四長’ 중의 첫 덕목인 ‘史德’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전기문 저술에 공정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忠實’한 글쓰기 되지 못하고, ‘誇大’·‘附會’·‘武斷’으로 얼룩지게 된다고 주장했다.<sup>24)</sup> ‘序例’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역사를 쓸 때는 반드시 공평한 마음으로 써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내서 화를 일으키겠는가? 영국의 유명한 수상 글래드스톤<sup>25)</sup>은 일찍이 어느 화공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있는 그대로의 나

21) 序例에서 ‘정치상의 공적’이며 친분도 깊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李鴻章』, 『專集』之三, 2쪽 참고)

22) 청조의 수구 및 보수 세력에 맞서 개혁을 지향하는 큰 방향성에서 계승자라고 할 수 있다.

23) 『中國歷史研究法補編』, 『專集』之九十九, 78쪽 참고.

24) 위의 책, 14-16쪽 참고.

25) 윌리엄 글래드스톤(William Ewart Gladstone, 1809~1898).

를 그리라.(Paint me as I am.)고 말했다. 그 자신의 참모습을 잃지 않게 하라는 말이다. 내가 쓴 이 책은 글래드스틴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 이홍장이 알게 된다면 반드시 지하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하리라. “젊은이가 나를 아는구나.”<sup>26)</sup>

또한 ‘있는 그대로’의 ‘忠實’한 글쓰기는 자연히 평이하면서도 진솔한 표현과도 연결된다. 이는 량치차오의 신문체 문장 표현의 중요한 특색이기도 하다. ⑥과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그는 『李鴻章』에서 전주의 성격을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이때 자신의 기술은 물론 동서고금의 여러 인물과 비교하거나 타인의 평가를 인용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하여 이홍장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했다. 예를 들어, 결론의 말미에 인용한 일본의 언론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평가가 대표적이다.<sup>27)</sup>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가 그에 대해 평하기를, “그에게 호방한 용기가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으며 결단력이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가 영리하고 기지가 있으며 정세의 이해득실을 절묘하게 살피는 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는 완전히 냉혈동물 같았으니, 이는 중국인의 특성이다. 그의 그 사대주의도 중국인의 특성이다. 그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한 것도 중국인의 특성이다. 그 굳은 두뇌와 무뚝뚝한 낮가죽도 중국인의 특성이다. 그 말을 교묘하게 받아넘기는 것도 중국인의 특성이다. 그 교활하고 간사하여 꿩꿩이가 있는 것도 중국인의 특성이다. 그 자신에 차고 거만한 것도 중국인의 특성이다.<sup>28)</sup>

26) “蓋作史必當以公平之心行之，不然，何取乎禍梨棗也？英名相格林威爾嘗呵某畫工曰：‘Paint me as I am!’ 言勿失吾真相也。吾著此書，自信不至爲格林威爾所呵。合肥有知，必當微笑於地下曰：孺子知我。”(『李鴻章』, 『專集』之三, 2쪽)

27) 『李鴻章』에 수록된 전체 인용문은 량치차오가 일본 매체에 실린 유명 언론인 도쿠토미 소호의 평론을 ‘이홍장에 대한 어느 일본인의 평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소개한 것이다. 그 중 본고에서 인용한 위 대목은 그 ‘어느 일본인’ 즉 도쿠토미 소호가 다시 무쓰 미네미쓰의 평가를 인용하며 시작한 부분이다. 결국 량치차오는 도쿠토미와 무쓰 2인의 평가를 동시에 활용했다. 무쓰 미네미쓰는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할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으로, 중국 측 대표였던 이홍장을 직접 상대했다.

28) “陸奥宗光評彼曰：‘謂彼有豪膽，有逸才，有決斷力，寧謂彼爲伶利有奇智，妙察事機之利害得失也。’此言殆可謂鐵安不移。……彼純然如涼血類動物，支那人之性也；彼其事大主義，支那人之

전주의 개성을 표현해내기 적합한 언론이나 사건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인물됨이 보다 생동감 있게 묘사되도록 했다. 역시 전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긴 인용문에 이어 량치차오는, 그저 평가가 매우 적절하여 추가할 것이 없으며 중국인은 반성해야 한다고만 간략히 언급했다. 이는 그가 인물의 생애를 독자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해내기 위해 자신의 언어 외에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타인의 언어도 적절히 동원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더 쉽게 감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의 중요한 신문체 전기문 표현방법 중 하나이다.<sup>29)</sup>

이는 전기문에서도 문학적 효용성을 매우 중시한 것으로, 스스로 역사가의 책임을 상기시키며 저술에 임하면서도 동시에 문학적 소임도 다하고자 했던 기본 태도에서 기인한다. 특히 전주가 가진 이미지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제 8장에서 청일전쟁 패배 후 1895년 3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기 위해 일본에서 회담을 하던 중 괴한의 총탄을 맞고 안면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여러 의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탄알을 제거하면 상처는 곧 나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 날 정양하며 몸과 마음을 수고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홍장이 깊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라가 위난에 직면하여 평화의 국면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지체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시간을 끌어서 나라를 망치겠는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수술하지 말라.”라고 했다. 피격당한 다음날, 어떤 이가 피에 흠뻑 젖은 이홍장의 두루마기를 보고 ‘이 피는 나라에 보답하는 피다.’라고 말했다. 이홍장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 목숨을 버려서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군자들은 그 의분이 넘치고 충성스런 기세에 대해 존경했다.<sup>30)</sup>

性也；其容忍力之強，支那人之性也；其硬腦硬面皮，其詞令巧妙，支那人之性也；其狡猾有城府，支那人之性也；其自信自大，支那人之性也。”（『李鴻章』，『專集』之三，88-89쪽）

29) 『作文教學法』，『專集』之七十，18쪽 참고.

30) “衆醫皆謂取出槍子，創乃可瘳，但須靜養多日，不勞心力云。鴻章慨然曰：‘國步艱難，和局之成，刻不容緩，予焉能延宕以誤國乎？寧死無割。’刺之明日，或見血滿袍服，言曰：‘此血所以報國也。’鴻章潸然曰：‘舍予命而有益於國，亦所不辭。’其慷慨忠憤之氣，君子敬之。”（『李鴻章』，『專集』之三，54쪽）

독자를 감동시키고자 하는 의도나 주관성이 다분한 글쓰기이다. 위와 같은 단락에 뒤이어 시모노세키 조약 전문 등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한바탕 자세히 기록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감동이 더하다. 그리고 다시 그 뒤에 8장의 마무리 평론을 하면서는 수사와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번 강화회담의 상황을 보면, 이홍장은 마치 춘추시기 齊나라 國佐가 晉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나 1870년 프랑스의 베네데티(필자주: Vincente Benedetti, 보불전쟁 당시 프로이센과 협상했던 외교관)가 외교사절로 프로이센에 갈 때와 같았다. 오랑캐의 군마가 국경까지 밀어닥친 가운데 노여움을 참고 울분을 삼키며 하는 말은 방관하는 이가 들어도 마음이 쓰리거늘, 하물며 이홍장은 그 상황을 몸소 겪었으니 오죽하랴! 10년 전 텐진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의 의기를 돌이켜 보니 마치 어젯밤 꿈만 같다. 아! 날개 달린 응룡도 우물에 빠지면 땅강아지나 개미도 그를 괴롭힐 수 있고, 노쇠한 천리마도 마구간에 엮으려 있으니 우둔한 둔마도 그를 비웃는다. 세상의 의기소침한 일 중에 무엇이 이보다 더하랴?<sup>31)</sup>

량치차오는 저술과정에서 조약의 초안·수정안·전문 및 관련 일화 등 자료를 충분히 수집·취사·분석·판단하여 역사적 진실성을 최대한 확보했다. 『史家四長』 중의 『史學』 덕목에 대해 근대적 평전체의 차원에서 재해석하여 충실히 실천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자료들을 엮는 가운데 문학적 기교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최대한 생동하는 문장으로 만드는 문학적 소임도 수행했다. 이로써 전기문에서도 자신의 신문체 산문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다.<sup>32)</sup> 역시 『史才』를 수

31) “觀李鴻章此次議和情狀，始如春秋齊國佐之使於晉，一八七〇年法參亞士之使於普。當戎馬壓境之際，爲忍氣吞聲之言，旁觀猶爲酸心，況鴻章身歷其境者。回視十年前天津定約時之意氣，殆如昨夢。嗟乎！應龍入井，螻蟻困人；老驥在櫪，駑駘目笑。天下氣短之事，孰有過此者耶？”(『李鴻章』, 『專集』之三, 58쪽)

32) 량치차오의 신문체 특징에 대해서, 청소년기에 량치차오 문장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바 있는 胡適이 개괄적으로 분석·정리한 바 있다. ①문체의 해방, ②조리의 분명함, ③辭句의 평이함, ④자극적이고 정감이 넘침 등이다.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胡適文存』第二集卷一, 遠東出版公司, 1953년, 207쪽 참고) 관련하여 량치차오 스스로도 “啓超는 일찍부터 동성파의 고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 문장은 조리가 분명하고 필봉에는 언제나 정감이 담겨 있어, 독자들에게는 특별히 일종의 매력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했다. (『清代學術概論』二十五, 『專集』之三十四, 62쪽)

준 높게 구현해낸 중요한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홍장이 주도한 양무운동의 실패에 대해, 서구의 전정한 양무를 배우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평론 대목에서도 “이것은 이른바 무염이 서시의 찡그리는 얼굴을 본받으려고 한 것이나, 수릉의 소년이 한단의 걸음걸이를 배우려다 본래 자기 걸음걸이도 잊은 것처럼, 배우면 배울수록 추해질 뿐, 끝내 얻는 것이 없음이 실로 당연했다.”<sup>33)</sup>라며 비유를 적극 활용했다.

다음으로 ③과 관련하여, 량치차오가 『李鴻章』을 저술하는데 있어서 강령으로서 가장 중시한 점은 전주 즉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와 역사적 사건의 관계, 사건과 사건의 관련성·인과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다. 앞서 일부 논의했지만 특히 중요한 점으로 여겨져 약간 보충하자면, 이를 통해 독자들은 무엇보다 전주가 역사의 흐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인지 아닌지 평가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량치차오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도 큰 사건의 실마리로서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주의했다. 다음 장에서 내용적으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홍장의 인생은 물론 중국 근대사에서의 최대 변환점을 청일전쟁의 패배로 규정했는데, 사실 그 결정적 실마리는 조선 문제를 두고 외교적 실책을 범한 것이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텐진조약을 크게 주목하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이라도 관건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결국 인물에게 귀납시켰다. 본론 중에서도 핵심 부분인 제 4장부터 9장까지에서, 이홍장이 태평천국·염군을 진압하며 군사가로서 입지를 다진 후 정치 지도자로서 정권을 장악했으나 과감한 혁명가는 물론 진정한 개혁가도 되지 못했으며,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외교가로서 실패를 거듭하다 역사적 책임을 떠안고 결국 한직으로 물러난 데 대해 시종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했다.

아울러 본론 핵심 부분의 뒤인 제 10장에서는 한직인 兩廣總督으로 물러나 있

33) “無鹽效西子之顰，邯鄲學壽陵之步，其適形其丑，終無所得也，固宜。”(『李鴻章』, 『專集』之三, 39쪽) 무염은 대표적 추녀이고 서시는 미인으로, 걸모습을 따라한다고 미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邯鄲之步’는 『莊子』 「秋水」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역시 남을 흉내 내다가 자기 것마저 잃는다는 의미이다.

던 1898년 9월부터 1900년 9월까지 약 2년의 시기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 이어서 제 11장에서는 義和團 사건의 수습을 맡아 全權義和 大臣으로 중앙 정계에 전격 복귀했으나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수구파에 끌려 다니며 保身에 그쳤던 데 대해 실망과 비판을 함께 표출했다. 특히 량치차오는 제 10장에서, 이홍장이 비록 40년 관직생활 중 가장 한직이지만 商務大臣·兩廣總督으로서 “황하를 치수하고 광둥·광서 지방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통사람들과는 달랐다. 그것을 덧붙여 논의하는 것 또한 역사를 쓰는 사람의 책임이다.”<sup>34)</sup>라고 평가했다. 전주가 중요한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라든가 의미 있는 일들은 찾아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여긴 것이다. ‘史德의 발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량치차오는 제 12장 결론에서 이홍장을 동서고금의 여러 역사적 인물들과 비교 논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李鴻章』 제 1장 서론부터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영웅주의의 관점으로 논의한 상황에서, 이홍장이 영웅이 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생각된다.

중국 인물로는 고금에 걸쳐 霍光·諸葛亮·郭子儀·王安石·秦檜·曾國藩·左宗棠·李秀成·張之洞·袁世凱 총 10인과 각각 비교했다. 외국 인물로는 메테르니히·비스마르크·글래드스톤·티에르·이이 나오스케·이토 히로부미 등 각국 지도자들과 비교했다. 특히 비스마르크와의 비교가 핵심적이다. 이홍장을 ‘동양의 비스마르크’라고 평하는 것은 아첨일 뿐이라며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을 건설한 반면에 이홍장은 어쨌든 거대한 중국을 이등국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의 실패가 ‘우승열패’·만국경쟁의 시대에 국가적 실력이 부족함에 기인한 점이크므로 한 사람만을 탓할 수 없음을 이해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지만, 비스마르크를 빌어 ‘실패한 영웅’ 이홍장의 한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비교논의 이후 량치차오 자신의 마지막 평론은, 갈수록 엄혹해져가는 세계사의 조류 속에 이홍장만한 인물조차 나오기 어려울 수 있는 중국의

34) “至其治河治粵，固亦有異於常人者焉，附論及之，亦作者之責任也。”(『李鴻章』, 『專集』之三, 68쪽)

미래를 염려하며, 시대를 바꾸고 새로이 만드는 영웅들이 나오기를 염원하는 것이었다. 그 마지막 구절은 詩歌이다. 중국에 아편전쟁의 암운이 드리울 무렵 애국계몽시운동으로 애국심과 개혁의지를 표출한 龔自珍의 「己亥雜詩」 七言絕句 315수 중 제 220수를 인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대신했다. 문학가다운 마무리라고 하겠다.

중국이 살아 일어나려면 폭풍우 같은 힘에 의지해야 하건만,  
모든 말들이 일제히 병어리가 되어 있으니 슬프구나.  
내 하느님께 부탁드리니 다시금 기운을 내시어,  
어떤 제한에도 얽매이지 마시고 인재를 내려주소서.<sup>35)</sup>

### 3. '史' 측면의 가치: '이홍장과 중국 근대사' 평론을 통한 중국 계몽

앞서 언급했듯이 량치차오는 역사가<sup>36)</sup>로서 중국의 근대 사학을 이끌었다. 그는 '역사'의 정의에 대해 초기 저술인 1902년 「新史學」에서, "역사란 인류 진화의 현상을 서술하여 그 공리 공례를 구하는 것이다."<sup>37)</sup>라고 했다. 이후 정계를 떠나 주로 학술과 교육에 종사하던 만년에는 역사 연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中國歷史研究法」과 『中國歷史研究法補編』을 저술했는데, 전자에서도 「新史學」의 진화론 기반 역사관을 이어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그 성적을 비교하여 인과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현대 일반인들의 활동에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중국 선민들의 활동을 서술하여 현대 중국 국민의 귀감으로 제공하는 것을 중국사라고 한다."<sup>38)</sup>라고 규정했다.

35) "九州生起特風雷, 萬馬齊瘖究可哀. 我勸天公重抖擻, 不拘一格降人才." (『李鴻章』, 『專集』之三, 90쪽)

36) 량치차오는 각종 역사 관련 저술 가운데 근대적 역사가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新史氏'라고 일컬었다. 또 외국의 역사를 기술할 때는 자신을 '外史氏'라고 일컬었다.

37) "歷史者, 敘述人群進化之現象, 而求得其公理公例者也." (『文集』之九, 10쪽)

38) "史者何? 記述人類社會廢續活動之體相, 校其總成績, 求得其因果關係, 以爲現代一般人活動



명백하게 진화론을 사유배경으로 하는 위와 같은 계몽주의 역사관과, 역시 같은 성향의 문학관 하에, 량치차오의 수많은 전기문 저술은 매우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계몽주의 목적의식을 추구했다. 전기문도 한 시대를 살아간 인간의 활동을 기록하고 그 진화를 인과관계로 설명함으로써 當代 및 후대 일반인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로써 민중계몽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더구나 량치차오는 1898년 무술변법 실패 후 일본에 망명한 상황 하에, 오히려 더 왕성한 학술·문학 및 언론 활동 등을 통해 대중을 계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 정치로의 복귀를 갈망했다. 그러한 가운데 1901년 발생한 이홍장의 사망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에 량치차오는 당시 정치 및 군사·외교적 상황을 평론하기 위해 그간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던 이홍장을 전주로 삼아 전기문을 저술했다. 이러한 취지는 『李鴻章』 곳곳에 보인다. '序例'에서 이미 "저자는 시국에 대해 약간의 소견이 있는 바를 감히 숨기지 않았으니, 그 뜻은 옛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인들에게 있다."<sup>39)</sup>라고 천명했다. 이홍장을 매개로 당시 정세를 이해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진화를 위한 중요한 귀감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저술 취지는 孟子 「萬章下」에 나오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시대를 논해야 한다'는 '知人論世'의 관념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량치차오는 계몽을 추구하는 뚜렷한 목적의식 하에 시대를 통해 인물을 이해하고, 다시 인물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는 과정을 순환하며 『李鴻章』을 저술했다. 과거의 중국 전기가 한 개인의 사적을 기술하는 데 치중했던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제 1장 「서론」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무릇 이홍장과 오늘날의 중국은 그 관계가 이와 같이 깊고 두터워, 이홍장의 인물됨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햇불 같은 안목으로 식견이 넓어야만 한다. 중국의 수천 년래의 정권 변천의 대세와 민족 흥망의 조류, 그리고 현재 중국과 외국 간 교류의 이면 등을 관찰해야만 이홍장이

之資鑒者也。其專述中國先民之活動，供現代中國國民之資鑒者，則曰中國史。”(『專集』之七十三，1쪽)

39) “著者於時局稍有所見，不敢隱諱，意不在古人，在來者也。”(『專集』之三，1쪽)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다. 맹자가 이르기를, “사람을 알려면 그 시대를 논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대도 본래 논하기 어렵지만, 사람 또한 어찌 쉽게 알겠는가?<sup>40)</sup>

이상적인 전기문을 저술하려면, ‘史家四長’ 중의 ‘史識’을 ‘햇불 같은 인목’의 수준으로 갖추어 관찰의 국면과 관점을 크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량치차오는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성·연속성과 이홍장의 관련성을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제 2장 ‘이홍장의 위치’와 3장 ‘이홍장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의 중국 형세’에서는 이홍장이 등장하기 이전과 막 등장할 무렵 중국의 권력구조 및 혼란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그 가운데 이홍장이 曾國藩의 제자이자 참모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서술했다. 영웅이 만 들어지기 시작하고 무대에 등장하는 난세 즉 시대를 논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제 4장 ‘군사가로서의 이홍장 상’과 5장 ‘군사가로서의 이홍장 하’에서는 이홍장이 청조의 부패 및 태평천국·염군의 난 등으로 인한 내적 혼란과 열강의 침략으로 인한 외적 수난 가운데 기반을 다져나가며 군사가로서 우뚝 서는 과정을 논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태평천국의 위세가 절정으로 치닫는 등 어지러운 정국을 서술하고, 그 가운데서 이홍장이 淮軍을 조직하여 蘇州와 南京 등지를 수복함으로써 난을 평정해낸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잇달아 捻軍의 난까지 진압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행동으로 옮겼으며, 장수와 부하들을 사랑으로 통솔한 인재였다고 평가했다. 또 이는 이홍장이 중국변을 부모나 신처럼 여기며 그 휘하에서 배운 바를 잘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량치차오의 중국변에 대한 존경심도 엿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량치차오는 혼란한 시대배경이 이홍장이라는 영웅적 인물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sup>41)</sup> 요약하면, 당시 태평천국의 위세가 절정에 이른 반면에

40) “夫以李鴻章與今日之中國，其關係既如此其深厚，則欲論李鴻章之人物，勢不可不以如炬之目，觀察夫中國數千年來政權變遷之大勢，民族消長之暗潮，與夫現時中外交涉之隱情，而求得李鴻章一身在中國之位置。孟子曰知人論世，世固不易論，人亦豈易知耶？”(『專集』之三，3쪽)

41) 량치차오는 여러 저술에서 ‘영웅’에 대해 자주 논의했다. 그중 『李鴻章』의 ‘緒論’에서는, ‘시

청조는 이완되고 관군은 완전히 쇠약해졌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 태평천국에 대한 진압은 주로 중국변의 湘軍에 크게 의지했고, 그 과정에서 이홍장이 점차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이홍장은 1862년 3월 중국변의 후원 하에 淮軍을 조직하고 상군의 지원까지 받아 마침 정점을 지나 해이해져가던 태평천국을 평정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량치차오가 보기에, 사실 태평천국이 무너진 원인은 스스로 무기력해진 데 있었다. 이에 대해 “6국을 멸망시킨 것은 6국이었지 秦나라가 아니었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진나라였지 천하가 아니었다.”<sup>42)</sup>라고 비유했다. 이는 이후 『朝鮮亡國史略』 등에서 조선의 멸망을 논의할 때도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흥망성쇠에는 근본적으로 우승열패·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원리가 작동함을 강조한 것이다.

량치차오는 이러한 계기에 이홍장이 위로는 중국변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아래로는 부하들을 적절히 통솔하며 태평군의 중심부를 집중 공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았다. 또 당시 이홍장은 난을 진압하는 데 함께 공을 세운 서구인과 중국인이 결합된 용병부대 常勝軍에 대한 관리에도 단호하고 강경하게 임함으로써 열강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고 실질적으로 외교 업무도 시작하게 되었다고 여겼다.

한편 량치차오는 군사가로서의 이홍장의 긍정적인 면모를 찬양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더불어 태평천국의 뛰어난 지도자 李秀成 및 陳玉成 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입장에서 상당한 평가를 내렸다. 인물됨은 물론 국면을 균형감 있게 보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홍장은 1863년 蘇州城을 수복하여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약조를 파기하고 투항한 적장을 죽였다. 특히 관련하여 보증을 선 동반자 고든<sup>43)</sup>과의 의리도 배신했다. 량치차오는 이에 대해 군자답지 못한 행위로 비판하고, 점차 권모술수에 능해져가

대를 만드는 영웅과 '시대가 만드는 영웅'이 있는데, 결국 이홍장은 후자에 해당하고, 이 부류는 시대와 세계를 뒤흔들 정도는 아닌 평범한 영웅이며, 다만 이것이 그를 타할 일은 아니라고 평론했다. (『專集』之三, 4-5쪽 참고)

42) “滅六國者六國也, 非秦也. 族秦者秦也, 非天下也.” (『李鴻章』, 『專集』之三, 19쪽)

43) 찰스 조지 고든(Charles George Gordon, 1833~1885).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군인으로, 상송군을 재건한 후 이홍장을 도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는, 그러한 면에서도 시대를 바꾸는 영웅이 될 수 없었던 이홍장의 면모를 드러냈다.

태평천국에 대해서는, 洪秀全 수준의 인물이 아니라 李秀成 같은 호걸이 최고 영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누가 중국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劉邦이 창업하자 사람들은 項羽를 욕했으니, 성패로 사람을 평가한 것이다.”<sup>44)</sup> 라는 비유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량치차오의 논의는 시종 이와 같은 진화론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 이홍장도 ‘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을만한 우월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1864년 6월 태평천국이 평정되었지만, 이미 1853년 무렵부터 또 다른 민란인 捻軍의 난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태평천국의 잔당까지 합류하여 기세를 높였다. 청조는 다시 중국변과 이홍장에게 의지했다. 이때도 이홍장은 스승인 중국변의 후원을 받아 1865년 12월에 동염군, 1868년 6월에 서염군을 진압했다. 역시 우월한 인재로서의 능력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이홍장은 청조의 최대 현안이었던 태평천국과 염군의 난을 잇달아 평정한 후 자연스럽게 북경 중앙정계에 실력자로 등장했다.<sup>45)</sup> 곧바로 지도자로서 중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서구의 우월성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주지하는 ‘洋務運動’을 말한다. 그런데 이 양무운동은 마침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벌어졌던 ‘明治維新’이라는 근대화 운동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양자는 양국 간 전쟁의 형태로 대결을 벌이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1894년 조선의 종주권을 놓고 벌인 청일전쟁에서 중국은 참담한 패배를 당했고, 결과적으로 양무운동도 실패로 귀결되었다.<sup>46)</sup>

량치차오는 우선 이홍장이 이십여 년 동안 주도한 양무운동에 대해, 자신도 중국의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는 비판적 계승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경쟁자이기에

44) “劉興罵項，成敗論人。”(『李鴻章』, 『專集』之三, 26쪽)

45) 한편 량치차오는 이홍장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중국변에 대해서, 신중하고 성실하며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스스로 결단하여 물러날 줄 알았던 진정한 ‘君子’라고 평가했다. (『李鴻章』, 『專集』之三, 26쪽 참고)

46) 메이지유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양무운동이라는 근대화 노력을 ‘실패’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공과에 대한 별도의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나름대로 불편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다. 제 6장의 제목이 ‘양무시대의 이홍장’이고, 키워드로 ‘양무의 치적’·북양해륙군병력’·이홍장 양무의 실패 이유’를 제시했다. 키워드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양무운동에 대해 상당한 분석을 했고, 그 총체적 평가는 ‘실패’였다. 실패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첫째, 이홍장이 군사가로서 성공하여 정치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군사에만 치중하고, 민정 즉 정치는 몰랐기 때문이다. 향후 군사 방면에서 실패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둘째, 이홍장이 외교는 어느 정도 알았지만 역시 내정은 몰랐기 때문이다. 군사 실력자로 등장하며 이미 서구 열강들과 외교 교섭을 시작했고, 단호하고 강경한 성향을 보이며 권위를 인정받기도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셋째, 중국의 조정 구조나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했으나, 국민국가적 추세 등 세계사적 조류 및 시국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sup>47)</sup> 아래로부터의 개혁 즉 국민을 계몽시켜 국가를 근대화시켜야 하는 이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량치차오가 『李鴻章』을 저술한 시기는 일본에 망명해 있던 기간이었다. 사실 그도 이홍장 이후 ‘변법유신’의 근대화 운동을 벌였지만, 마찬가지로 위로부터의 개혁에 그친 한계로 인해 이미 정치적 실패를 겪은 상황이었다. 유사한 실패 경험 속에서 우려나온 체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량치차오는 위와 같은 실패 이유 분석과 더불어 이홍장의 양무운동 사업전반에 대해 상소문 및 다양한 통계자료 등을 제시해가며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것들을 통해 보면, 사실 이홍장이 상당히 많은 개혁 조치들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간략히 말해서 이홍장은 태평천국의 난을 본격적으로 진압하며 실세로 떠오른 1862년 초부터 유신파에게 밀려나기 시작하는 1894년 5월경까지, 무기와 군사장비 등을 제조하고 북양해군을 편성하고 철로 개설 및 상업에 힘쓰고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고 서구로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등 다양한 ‘양무’를 시행했다.<sup>48)</sup>

47) 이상 세 가지 실패 원인 분석은 『李鴻章』, 『專集』之三, 41쪽 참고.

48) 이홍장의 양무 즉 근대화 노력은 대체로 ①서방 군사공업의 수용을 통한 국방근대화 추구, ②외자 도입을 통한 상공업 근대화 추구, ③근대적 외교활동 추구, ④유학생 파견 등으로

물론 이것들이 양무에 속하는 일이지는 하지만 서구 양무의 전부는 아니었다. 간략히 말하면, 량치차오는 이홍장이 양무를 이해하긴 했으나 국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구가 국민국가로서 국민을 각성시키고 그 힘으로 국가를 근대화로 진보시켜나간 기제가 더 중요한 國家事務인데, 이 국무가 바로 진정한 양무임을 깨닫지는 못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상소·도표 다음에 서술이 이어진 후 다시 평론을 한 내용을 통해 그 취지를 알 수 있다.

나는 감히 한마디로 단언한다. 이홍장은 정말 국무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국가가 어떤 것인지 몰랐고, 국가와 정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몰랐으며, 정부와 인민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몰랐고, 대신이 마땅히 다해야 하는 책임도 몰랐다. 그는 서구 국가들이 부강해진 근원에 대해 망막하니 들은 바가 없었다. 우리 중국의 政教·문물·풍속 중에는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단지 총·포·배·철로·기계만이 미치지 못할 뿐이니, 단지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기만 하면 양무의 일은 끝난다고 생각했다.<sup>49)</sup>

대체로 보아 이홍장의 양무는 군사업무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량치차오는 그 이유에 대해, 이홍장은 중국군 스스로 외국군을 막아낼 능력이 부족함을 잘 알았고, 그에 따라 군사력을 특별히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다음으로 중시한 것은 철로 개설 및 招商局·織布局·電報局 설립 등 상공업 관련 업무였다. 이밖에 학교 설립이나 유학생 파견 등은 사실 앞의 업무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조업무였다. 하지만 이 인재양성 업무는 이후 중국 근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됨으로써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양무운동의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언급했듯이 양무운동은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상대

요약할 수 있다. (王晨旭, 「李鴻章與中國近代化」, 『綿陽師專學報』 15권 2기, 綿陽, 1996, 참고)

49) “吾敢以一言武斷之曰：李鴻章實不知國務之人也。不知國家之爲何物，不知國家與政府有若何之關係，不知政府與人民有若何之權限，不知大臣當盡之責任。其於西國所以富強之原，茫乎未有聞焉。以爲吾中國之政教·文物·風俗，無一不優於他國，所不及者惟槍耳·炮耳·船耳·鐵路耳·機器耳，吾但學此，而洋務之能事畢矣。” (『李鴻章』, 『專集』之三, 39쪽)

적·가시적으로 실패로 평가받는 경향이 크다. 사실 역사적 사건들의 연속성·인과성을 고려하면 근대화 노력으로서의 양무운동과 청일전쟁의 실패 양자를 분리하여 논하기 어렵기도 하다. 중국인들에게는 연계선상에 있는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었다. 때문에 량치차오도 이홍장 양무운동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공력을 기울였고, 바로 이어서 청일전쟁의 패배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량치차오는 이홍장 양무의 실패 원인에 대해 또 다른 각도에서 정리한 바 있다. 크게 그의 전문과 학식이 부족했던 점, '用人'을 적절히 하지 못했던 점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밖에 실무적인 것으로 '官督商辦'을 비롯한 상업 관련 기제 마련에서 실패한 점도 중요하게 여겼다. 역시 양무의 물질적이고 지엽적인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작동원리·사유체계로서의 국민국가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을 실패의 원인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끌고 그 역량을 활용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는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량치차오의 인식은 시종 일관되어 있다. 이홍장은 배움이 없고 능력도 부족한 '不學無術'이었고, 시대를 만드는 영웅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에게 시대를 만드는 영웅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를 받쳐주는 '무명의 영웅'들도 없었다.<sup>50)</sup> 때문에 이홍장과 양무의 실패에 대해 그 개인을 탓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이홍장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인재였고, 당시 중국의 위기를 정확히 인식한 통찰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애국 충정을 지녔었다고도 평가했다. 이 점에 대해서 량치차오는 깊은 감동을 표현했고, 이홍장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여겼다.

위와 같은 양무에 대한 평론은 자연히 그 실패를 가시화시킨 청일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 및 그것과 이홍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량치차오는 『李鴻章』 제 7장에서, 청일전쟁의 패배 역시 중국의 총체적인 실패였으며, 따라서 이홍

50) 량치차오는 『飲冰室自由書』 중의 「英雄與時勢」·「豪傑之公腦」·「無名之英雄」 등 여러 문장에서 시대를 바꾸고 만드는 진정한 영웅 즉 '호걸'과 그를 뒷받침하는 '무명의 영웅'에 대해 자주 논의했다. (『專集』之二 참고)

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고, 결국 그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당시 중국인들에게 ‘中華’의 자존심으로서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뜻밖의 참담한 패배였기에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이홍장의 숙명에 대해 서구 신문에 실린 한 평론가의 논평을 인용하며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서양 신문에서 어느 평론하는 이가 말하기를, “일본은 중국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 이홍장 한 사람과 싸운 것이다.” 이 말은 약간 지나치긴 하지만 또한 사실에 가깝다.<sup>51)</sup>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 이홍장의 군사가로서의 명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연계선상에 있던 양무운동도 중지부를 찍게 되고, 량치차오 등이 주도한 유신운동이 시작되었다. 량치차오는 이러한 상황을 “중국 유신의 새싹은 중일전쟁으로부터 돌아났다.”<sup>52)</sup>라는 말로 표현하며 제 7장을 시작했다.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보면, 이는 이홍장 양무와 이어지는 량치차오 유신을 포괄하는 중국 근대사의 대사건이었다. 때문에 량치차오가 청일전쟁에 대해 이홍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가 보기에 우선 전쟁의 화근은 ‘조선’이었다. 이홍장이 그동안 ‘속국’으로 여겨온 조선 관련 문제를 미숙하게 처리함으로써 1872년부터 일본과 외교 분쟁을 발생시켰다고 보았다.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의 패권주의 속성을 누구보다 꿰뚫어보고 비판하기도 했던 량치차오의 이러한 모순된 제국주의적 시각은 조선의 멸망을 논의한 여러 저술 가운데서 일관되게 보인다.<sup>53)</sup> 아무튼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조선은 외교를 할 수 없는 신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본의 책략에 휘말려 조선이 일본과 국가 간의 외교 교섭을 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1872년 2월

51) “西報有論者曰，日本非與中國戰，實與李鴻章一人戰耳。其言雖稍過，然亦近之。”(『李鴻章』, 『專集』之三, 51쪽)

52) “中國維新之萌芽，自中日之戰生。”(『李鴻章』, 『專集』之三, 42쪽)

53) 참고, 「조선의 梁啓超 수용과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韓國學論集』 45집, 서울, 2009, 참고.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중국의 종주권이 상실되었으며, 1885년 4월 텐진조약으로 이를 확정했으니, 이것이 이홍장의 첫 번째 실책이라고 보았다.

이후 1894년 3월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총리교섭통섭대신으로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袁世凱가 이홍장에게 요청하여 중국군이 파병되었다. 텐진조약에 의거해 일본도 즉시 파병함으로써 상호 분쟁의 국면이 조성되었다. 戰功을 세우기 위해 불필요한 파병을 하게 함으로써 전쟁의 발단을 만든 위안스카이 를 신임한 것이 이홍장의 두 번째 실책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조선을 두고 이미 청일이 서로 모순을 표출하는 국면 속에서도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이홍장의 세 번째 실책이라고 여겼다.

량치차오는 청일전쟁에서의 처참한 전투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술했다. 이는 이홍장과 그의 淮軍이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받은 타격이 너무나 컸던 만큼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량치차오는 희생 양을 찾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역사가이자 계몽주의 지식인으로서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홍장의 책임을 12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했다.<sup>54)</sup> 앞서 논의한 세 가지 실책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들이다.

량치차오가 비록 청일전쟁 패배에 대해 이홍장의 책임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분석했지만, 역시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국민국가들 간의 냉엄한 경쟁에 있어서 중국이 실력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고 여겼다. 난세가 만든 영웅 정도로는 진화의 대세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청일전쟁의 패배는 前後 중국 외교의 굴욕적 실패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제 7장 ‘청일전쟁 시기의 이홍장’에 이어지는 제 8장 ‘외교가로서의 이홍장 상’과 9장 ‘외교가로서의 이홍장 하’에서 다루었다. 두 개의 장을 할애한 것은 량치차오가 그만큼 국가적 굴욕을 각성의 동기로 중시했음을 보였다고 생각된다.<sup>55)</sup> 요

54) 조선으로 하여금 외국과 조약을 맺는 등 외교를 하게 한 것, 기왕 조선의 자주를 묵인하게 되었으면 그 내란에 간섭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다른 나라의 중재에 의지하려고만 하며 시간을 지체했던 것, 중일이 완전히 적대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외교 책략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중국군의 군기가 문란하고 부패해진 것, 전쟁이 벌어진 후 총과 탄환 모두 엉터리였고 그나마 제대로 보급도 되지도 않았던 것, 전투에서 제대로 된 지휘관조차 없었던 것, 적을 두려워했던 것 등등. (『李鴻章』, 『專集』之三, 49-50쪽 참고)

약하면, 이홍장은 군사가로 성공하여 중앙 정계의 실력자가 되고, 자연히 중국을 대표하여 외교의 전면에 나서게 되어 일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력·국력이 부족했기에 잇달아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며 외교 협정들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이홍장의 외교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로 인해 청일전쟁이 야기된 측면도 있고, 전쟁 패배 이후로는 외교 실패가 더욱 심화되었다.

시모노세키조약이 대표적이다. 량치차오는 앞서 언급한대로, 이홍장이 조선 문제를 외교적으로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텐진조약에서의 실책을 범하게 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대립 국면으로 가고 있음에도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실책을 범했으며, 그로 인한 청일전쟁의 실패가 다시 시모노세키조약이라는 외교 실패를 부른 흐름에 대해 주의 깊게 논의했다. 전주와 역사적 사건 및 사건들 간의 관계를 중시한 가장 중요한 예이다. 량치차오는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물의 역할에 대해 진정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전체적으로 보면, 량치차오는 청일전쟁 패배를 비롯한 실패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홍장의 지도자로서의 부족함과 실책들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더 나아가 중국의 국력이 쇠약한 형세로부터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장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했다. 외교가로서의 이홍장에 대해서도 시모노세키조약 이후 중국의 약세를 확인한 열강들에게 핍박받으며 계속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흐름을 먼저 생각했다. 이홍장의 외교 실패는 외교가 아닌 내정의 실패 즉 국력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적이자 계승자인 량치차오가 저술한 『李鴻章』의 결론은 이홍장에 대한 동정과 비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근대화를 위한 계몽으로 모아졌다.

언급했듯이 『李鴻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청일전쟁 이후 외교가로서의 연속된 실패에 대한 논의까지이다. 이후 역사가의 의무로서 이홍장이 한직에 있을 때의 사적과 말년에 의화단 사건의 뒷수습을 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

55) 참고로 '군사가로서의 이홍장'도 상하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역시 정치가·외교가로서의 이홍장 보다 비중 있게 여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는 모습을 마저 그려내기는 했다. 하지만 결론의 말미에는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 후대 중국인들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책임을 맡는데 사양하지 않았다. 그러나 백년대계를 세워 후세에게 남기려는 뜻이 없었다. 속담에 이르듯 “하루 중이 되면 하루 중을 치는 것”일 뿐이었다. 중국 조야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러했다. 이홍장 역시 그 대표적 인물일 뿐이었다. …… 아! 이홍장의 실패는 이미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았다. 앞으로 이 내외외환의 경향이 이홍장의 시대보다 몇 배는 더 심할 것이고, 이제는 이홍장만한 인물을 찾고자 해도 아득하여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앞날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음을 금할 수 없으니, 그 끝이 어떨지 알 길이 없다.<sup>56)</sup>

요는 세계정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중국은 갈수록 위기로 빠져들어 가는데, 이홍장은 전형적인 중국인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지도자였을 뿐, 시대를 구원할만한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애국사상·영웅주의적 평론은 이홍장을 기리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기존의 중국 전기문과 다른 점이다. 량치차오에게 있어서 이홍장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중국의 근대적 진화와 그에 필요한 계몽을 위한 논거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결국 량치차오는 중국인들을 自強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몽적 의도에서 미래의 중국을 위해 방금 세상을 떠난 이홍장과 그 시대의 문제점들을 시급히 분석하고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 그러한 맥락에서 끝으로 더 큰 문제는 이후 이홍장만큼 책임감과 애국충정을 지닌 인물마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성을 개조하고 국민을 각성시켜 국가를 근대화하는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호소를 한 것이다. 『李鴻章』을 통해, 시대를 만드는 영웅적 지도자는

56) “彼於未死之前，當責任而不辭，然未嘗有立百年大計而遺後人之志，諺所謂‘做一日和尚撞一日鐘’，中國朝野上下之人心，莫不皆然，而李亦其代表人也。……嗟乎！李鴻章之敗績，既已屢見不一見矣，後此內憂外患之風潮，將有甚於李鴻章時代數倍者，乃今也欲求一如李鴻章其人者，亦渺不可復睹焉。念中國之前途，不禁毛髮粟起，而未知其所終極也。”(『李鴻章』，『專集』之三，90쪽)

물론 각성된 무명의 영웅적 국민들을 갈구한 량치차오의 바램을 엿볼 수 있다.

#### 4. 결론

이홍장은 후계자인 위안스카이와 더불어 조선말·대한제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중국인이다. 더구나 그는 중국이 피동적이고 파행적인 근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참담한 근대화의 과정을 겪은 한국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전기문 『李鴻章』에 대한 이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전기문 『李鴻章』의 가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전기문 역사상 전통적인 열전 체제로부터 근대적인 서구식 평전 체제로 전환을 시도한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점이다. 사마천 이래로 중국의 전기문은 문학과 사학이 긴밀하게 결합된 특별한 글쓰기 형식으로 산문 작품이자 동시에 역사 기록이었다. 『李鴻章』은 전통·국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현실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근대·서구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성공적 시도를 해냈다고 여겨진다. 특히 서사구조 면에서 分章의 방법을 사용하고 다량의 도표 및 관련 문건 등을 수록하고 특히 서술과 평론이 자유로이 섞인 ‘夾敍夾論’의 복합구조를 채택했다. 또한 문체 면에서 계몽주의·공리주의적 효용성을 갖춘 신문체로써 인물의 생애를 독자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해내고, 또 이를 통해 중국 근대사의 흐름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감응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중국 근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이홍장과 중국 근대의 크고 작은 여러 의미 있는 사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격변하는 역사의 흐름을 논의한 참신한 평론이라는 점이다. 이로써 전기문이 가공송덕에 머물지 않고, 역사학적 소임을 다함은 물론 정치적으로 대중들을 계몽시키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홍장에게 있어서나 중국 근대사에 있어서나 가장 관건이 되는 태평천국·염군의 난, 양무운동 및 청일전쟁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이다. 이를 중심으

로 량치차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근대 전환기에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을 전주로 채택하여 저술함으로써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들을 제공했다.

위의 文과 史 두 측면을 포함한 량치차오 사상의 핵심은 '新民思想'으로 집약되는 계몽주의이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계몽·국가근대화였다. 때문에 전기문 『李鴻章』도 전주 한 개인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대와 전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적 흐름을 평론했다. 이로써 당대 및 후인들에게 진화의 귀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李鴻章』은 량치차오가 주도한 新史學 즉 근대 사학의 관념 하에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전기문이 산문 체제의 하나로서, 문학적 특성을 적절히 발휘하여 역시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계몽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고, 이를 적극 실천했다. 이렇게 전기문의 사학적 지향과 문학적 지향은 근본적으로 국민계몽·국가근대화를 목표로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그리고 결국 정치 지도자 량치차오는 전기문 『李鴻章』으로써 당시 내외외환 중에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던 중국 민중들에게 나름대로 시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게 하고자 했다.

#### 〈參考文獻〉

-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 中華書局, 1994. (中華書局 1936년판 영인본)  
 李國俊, 『梁啓超著述繫年』,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86.  
 胡適, 『胡適文存』, 臺北, 遠東出版公司, 1953.  
 陳蘭村, 『中國傳記文學發展史』, 北京, 語文出版社, 1999.  
 陳必祥, 『古代散文文體概論』,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7.  
 夏曉虹, 『覺世與傳世-梁啓超的文學道路』,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1.  
 廖卓成, 『梁啓超的傳記學』, 臺灣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臺北, 1987.  
 朴成蘭, 『梁啓超新民叢報體風格之研究』, 臺灣師範大學 碩士論文, 臺北, 1989.  
 梁俊才, 「論梁啓超對傳記的界說」, 『麗水師專學報』 20권 4기, 浙江, 1998.

- \_\_\_\_\_, 「論梁啓超的當代人物專傳」, 『麗水師專學報』 21권 1기, 浙江, 1999.
- \_\_\_\_\_, 「論梁啓超對傳記之文史關係的創見」, 『浙江社會科學』 2000년 1기, 浙江, 2000.
- 王晨旭, 「李鴻章與中國近代化」, 『綿陽師專學報』 15권 2기, 綿陽, 1996.
- 朱文華, 「梁啓超的傳記作品及其理論的文史意義」,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2년 4기, 南京, 2002.
- 辜也平, 「西學東漸與中國現代傳記文學觀念的誕生」, 『中國比較文學』 57기, 福建, 2004.
- 馬紅強, 「中國傳記文學的‘寧馨兒’」, 『鄭州航空工業管理學院學報』 29권 4기, 鄭州, 2010.
- 吳康林, 「中國傳記史的拓荒之作—『李鴻章傳』述評」, 『忻州師範學院』 31권 3기, 忻州, 2015.
- 王昭鼎, 「梁啓超『李鴻章傳』與『清史稿·李鴻章』之比較」, 『平頂山學院學報』 31卷4期, 平頂山, 2016.
- 拙稿, 「梁啓超의 傳記觀 研究」, 『中語中文學』 42집, 서울, 2008.
- \_\_\_\_\_, 「조선의 梁啓超 수용과 梁啓超의 조선에 대한 인식」, 『韓國學論集』 45집, 서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Biographical Text 『Li Hong-Zhang(李鴻章)』 of Liang Qi-Chao

Choi, Hyeong-Wook

Written by Liang Qi-Chao(梁啓超),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of the modern period of China, 『Li Hong-Zhang(李鴻章)』 is a new type of Chinese biographical text that describes and criticizes the changing historical trends of China during that period in accordance to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military and diplomatic leader of the late 19th century.

As we have seen in this study, the value of the biography 『Li Hong-Zhang』 can be summarized in two ways. One is that it is a groundbreaking work in the history of Chinese biographical text that attempts to switch from an old-fashioned series of biographies to a new Western-style critical biography system. Since Sima Qian(司馬遷),

Chinese biographies have been both prose and historical records in a special form of writing that closely combines literature with history. 『Li Hong-Zhang』 uses divide into chapters(分章)'s method in terms of narrative structure, contains large quantities of diagrams and related documents, and adopts a multi-dimensional structure, especially one in which descriptions and reviews are freely mixed. In addition, as a newspaper with an enlightening and practical utility in terms of style, it vividly reproduces the life of a character before its readers, and through this, it better understands and responds to the flow of modern Chinese history.

The other value is that it is a novel review discussing the turbulent flow of histor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 Hong-Zhang - the most central figure in China's modern history - and various meaningful events of China's modern times. This allowed biographies to perform not only their historical duties, but also their political awakening.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f the War of the 'Taiping Heavenly Kingdom' (太平天国) and 'the forces of Nian'(捻军),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Chinese modern history, is key. At the center of this biography, Liang Qi-Chao provided important perspectives on how to understand change by adopting and writing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military and diplomatic figures as the forerunners in the period of his life and the period of modern transition.

The core of Liang Qi-Chao's thought is the Enlightenment, which is summed up as 'the thought of renewing the people(新民思想)'. His ultimate goal in history and literature, especially in politics, was national enlightenment and modernization. Therefore, the biographical text not only describes the individual main character, but also reviews the historical trend cente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s and main character. The book was written under the concept of modern historical study, which he led, as he intended to present a model of evolution to the day and to the latter. In addition, Liang Qi-Chao thought that biographical texts should be one of proselytizing, and that they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enlighten the public by properly exercising their literary characteristics. As such, the historical and literary orientation of the biographical literature was closely linked with the goal of national enlightenment and modernization. And in the end, political leader Liang Qi-Chao tried to make the Chinese people, who did not know where to go, understand the times in their own ways

and even prepare for the future by reading the biographical text.

Key words: 『Li Hong-Zhang(李鴻章)』, Liang Qi-Chao(梁啟超), biographical text, enlightenment, modern China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11월 1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